

전기 아끼면 환급받는 'DR제도'...실효성 없어 개선 필요

운영실적 의무감축DR 5년째 0건...자발적DR 2년 새 '반토막' 전력거래소 낙찰량 급감...소비자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유명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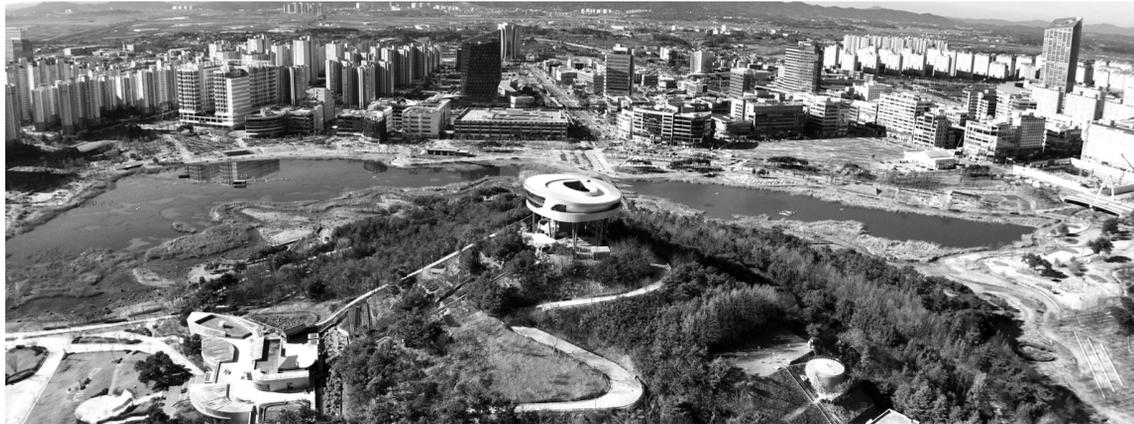
기업 또는 개인이 전기를 아낀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력수요반응(DR)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 흐름에 맞춰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경영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의 수요반응자원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DR제도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소비를 절약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 절약분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한전과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DR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전력시장 환

경이 달라지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DR제도는 적절한 제도활용을 위해 수요관리 사업자는 전기 수요관리가 가능한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감축DR과 자발적 DR로 분류된다. 우선 의무감축DR은 지정된 양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것을 뜻하며, 기업과 수요관리 사업자는 약정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전력을 정한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양의 전력 감축을 요구한다. 자발적DR은 각 기업들이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낙찰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최근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에 발맞춰 일반 가정 및 국민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DR 시장도 열렸고, 지난 2020~2021년에는 주파수 DR과 플러스DR이 도입되는 등 DR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감축DR은 지난 2019년부터 감축시험을 제외한 운영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과 5년만에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사실상 자발적DR의 시장거래 실적이 전체 수요 자원 감축 실적의 90%에 달하고 있지만, 자발적 DR 역시 절약한 전력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낙찰량

이 급감해 소비자가 기본정산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발적DR을 통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자원 운영 실적도 지난 2021년 306.8GWh(기가와트시)→2022년 179.9GWh→2023년 159.0GWh로 급감하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년째 전무한 의무감축DR 발령횟수와 자발적DR의 저조한 시장 낙찰률로 인한 역할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DR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처럼 모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DR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체제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빛가람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자료>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상생 발전사업 추진 전국 1위

지역산업육성 등 경제 활성화 도움 인재육성·주민지원 등은 개선 필요

빛가람혁신도시의 지역발전사업이 지역 상생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 도시를 대상으로 '2023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6개 분야별 추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16개 이전공공기관이 매년 ▲지역산업 ▲지역인재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6개 분야별로 상생 발전 사업을 발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1조 49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일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산업육성,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의 분야에서 1~2위를 차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인재육성, 주민지원, 유관기관 협력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년간의 상생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가 다른 사·군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T,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광주·전남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aT는 30일 "aT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및 협력을 통해 경영성과와 고용안정, 이직

률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aT 노사는 원활한 협력을 통해 ▲3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우수성과자 특별승진 등 고용 안정지원 ▲워라밸데이, 유연근로화성화 등 일·생활 균형 ▲노사합동 ESG경영 선포와 실천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LNG 냉열 활용 에너지 생산 시스템 개발

황지현 교수 연구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황지현 교수 연구팀이 LNG 냉열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저장 최적 시스템 개념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LNG 냉열 시스템 ▲상급 혼합냉매 시스템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생산 등을 연계해 24시간 에너지 생산 및 저장이 가능하게 했다. 황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최적 에너지 시스템은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온피크(On-peak)기간과 적은 오프피크(Off-peak)기간으로 나눠 설계됐다. 이를 위해 활용된 LNG는 모두 기화돼 소비처

에 공급된다. 황 교수 연구팀은 오프피크 기간 중 LNG냉열을 이용한 공기 액화 과정에서 압축기를 활용해 필요한 동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온피크 기간에는 전기를 최대 생산할 수 있고, 오프피크 기간에는 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게 돼 전기 수요가 많아지면 저장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황지현 켄텍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LNG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최적 시스템을 향후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강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9일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농촌지역 내 사회적농업 활성화 및 우수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 지역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치유 등을 도모하는 '농촌돌봄농장'과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 또는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는 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가능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농촌돌봄 농장의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향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기 협력 과제도 모색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돌봄농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